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모델 개발 및 적용 연구

수업 대화 PT(Pedagogical Talk)의 날 협의록

협의일시	2025. 5. 28.(수) 14:00 ~ 16:30	협의장소	6학년 연구실
참석자	정OO, 김OO, 한OO, 고OO, 안OO, 오OO		
협의 내용	<p>1. 개념기반 단원 설계의 출발점: '개념'에 집중하다</p> <p>이번 단원 설계에서는 '책임'과 '역할'이라는 개념 렌즈를 중심에 두고, 민주주의의 본질과 국가 기관의 역할을 탐구하고자 했다. 기존의 단원 설계에서는 단편적인 사실 전달과 활동 나열 중심이었다면, 이번 협의에서는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이 구조화되도록 구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단편적인 사례를 넘어서, '왜 그런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p>		
	<p>2. 성취기준과 개념의 연결: 의미 있는 학습 구조화</p> <p>사회과 성취기준인 [6사05-05], [6사05-06]과 국어과의 [6국03-02]를 중심으로, 민주정의 원리와 삼권 분립, 그리고 이를 생활 속 사례로 연결하는 과정을 구체화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단순히 국회의 기능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법과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에 따라 시민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탐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권력 분립이 왜 필요한가'와 같은 탐구질문을 중심으로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대화하며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p>		
	<p>3. 학생의 성장 중심 설계: 과정과 태도에 주목</p> <p>이번 협의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단원 설계가 학생의 가치·태도 영역까지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단지 민주주의의 구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데 목표를 두었다. 토의·토론, 탐구 활동, 역할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 스스로 책임감 있게 사고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업 설계를 통해 학생들은 '지식'이 아닌 '삶의 태도'로 민주주의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p>		
	<p>4. 협력적 수업 설계의 경험</p> <p>혼자였다면 이처럼 깊이 있고 입체적인 단원 설계는 어려웠을 것이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개념을 도출하고, 수업 흐름을 설계하며, 활동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매우 의미 있었다. 특히 핵심질문과 탐구질문을 함께 조정하고, 학생의 언어와 수준에 맞게 질문을 재구성하면서 학생 중심 수업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p>		
	<p>5. 수업 실천</p> <p>이번 단원 설계를 바탕으로 수업을 실행하게 되면, 학생들은 보다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찾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역할극을 활용한 국회·행정부·법원 재현 활동은 권력 분립의 중요성과 책임 있는 시민의 역할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향후 실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가 어떻게 확장되고, 어떤 전이가 일어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성찰하여 설계를 더욱 정교화해 나가고자 한다.</p>		